

## PROGRAM NOTES

## 김영선 피아노 리사이틀

**W. A. Mozart (1756-1791) 12 variations “Ah! vous dirai-je, maman” KV.265**

모차르트가 1778년 파리 여행 도중 들은 프랑스 민요 “Ah! vous dirai-je, maman”(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에 멜로디를 붙여 12개의 변주곡으로 작곡했다. 본래의 가사 내용은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가 어머니께 사랑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장조의 간결하고 사랑스러운 주제선을 때문인지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동요를 비롯하여 요한 크리토프 바흐, 까미유 생상스, 에르노 도흐나니, 프란츠 리스트 등 세계적인 작곡가들도 이 멜로디를 차용하여 작품을 쓰곤 했다. 12개의 변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단순한 주제의 변주를 넘어서서 화성 안에서의 다양한 움직임과 변주마다의 확고한 분위기 전환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다채로운 느낌을 들게 한다.

**L. v. Beethoven (1770-1827) Piano sonata No.8 op.13**

이 작품은 “비창” 소나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1798-1799년 사이에 작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토벤의 청각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로 그의 생의 전반기를 그린 작품으로 평가되어지기도 한다. “월광”, “열정” 소나타와 더불어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불리우며 초기 피아노 소나타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1799년에 출판되었으며 베토벤의 후원자였던 카를 폰 리히놉스키 공작에게 헌정되었다. 첫 번째 악장은 힘찬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악장은 서정적인 아다지오로, 마지막 악장은 경쾌한 론도이다. 각 악장은 서로 다른 감정과 특징을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

**F. Schubert (1797-1828) “Fantasy” for 4 hands in f minor D.940**

프란츠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판타지는 그의 생의 마지막 해인 1828년에 작곡되었으며, 슈베르트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발표되어 슈베르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약 20분 가량 소요되는 이 작품은 네개의 각기 다른 부분이 씬 없이 연결되어 있고, 첫 주제선율이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뒤섞이며 발전과 융합, 단절과 반전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는 장대한 푸가로 끝을 맺는다. 네개의 악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듯한 형태는 슈베르트가 말년에 성취한 그의 음악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첫 주제선율은 곡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며 전반적으로 여성적이고 가곡적인 성향을 띤다.

**J. Brahms (1833-1897) “Hungarian Dances” for 4 hands No.1& No.5**

청년시절 브람스는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드 레메니와 듀오 연주여행을 다니며 그에게서 집시음악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후로도 헝가리의 집시 무곡에 매료되어 당시 유행하던 피아노 연탄곡(두명이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여 작품집을 출판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총 21곡으로 되어있으며 훗날 관현악곡으로도 편곡되어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헝가리 무곡은 그중에서도 1번과 5번이 가장 유명한데, 1번은 G 단조로 시작되며, 활기차고 유쾌하며 리듬과 주제에서 동양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5번 F# 단조는 무디스트 음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멜로디와 풍부한 화음을 가미했다.


**A. Piazzolla (1921-1992) “Adios Nonino” for 4 hands (arr.Khoko Yamamoto)**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에 의해 작곡된 작품 중 하나로서, “Adios Nonino”는 그의 아버지 노누엘 피아졸라(Nonino)에게 헌정된 곡으로,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멜로디를 특징으로 한다. 피아졸라의 음악은 네오 탱고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전통적인 아르헨티나 탱고를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재해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곡은 피아노를 두 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형태로 편곡된 버전으로,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다. 이 작품은 감정의 기복이 크고, 강렬한 부분과 절제된 부분이 교차하는 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영아 선수가 그녀의 마지막 올림피아에서 사용한 곡으로 유명하다.


KIM YOUNG SUN  
"MY FAVORITE THINGS"

Special Guest, Lee Jong Eun  
스페셜게스트, 피아니스트 이종은


2024. 3. 8 (금) 오후 7:30 수성아트피아 소극장

주최 :  클래식웨이브

후원 :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동문회

문의 :  클래식웨이브 010-7348-1516

입장권 : 전석 초대(8세 이상 입장 가능)

예매처 :  interpark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KIM YOUNG SUN



## Pianist 김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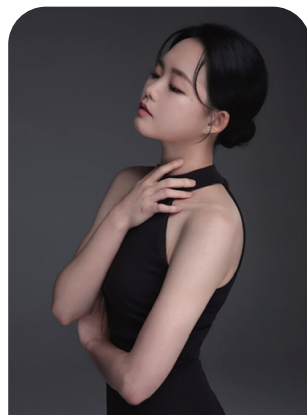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김영선은 대구광역시 예술영재교육원을 1기 교육생으로 수료하고 도오하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진학하였다. 이어서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Bachelor 와 Maste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모차르테움에서 Postgraduate과정을 수료했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피아노 국제 콩쿨 Mozart prize 3위, Allegro Vivo Kammermusikfestival에서 최우수 점수로 입상하며 유럽 무대에서 전문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잘츠부르크 미라벨 궁전에서 여러차례 독주회를 가졌으며,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 연주와 바이올리니스트 Luz Leskowitz와 다수의 듀오 무대를 통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Cantus Amabile 성악 앙상블과 Romantik Pur! 라는 주제로 오스트리아, 독일을 순회하며 협연하였고, 연주력을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Oper im Berg Festival의 전속 피아니스트로 발탁되어 활동하였다. 국내에서는 박범철 성악 아카데미의 초빙 연주자로 활동하며 폭넓은 음악적 소양을 쌓았다.

정진우, 이성원, Peter Lang, Dmitri Alexeev, Peter Ovtsharov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마스터클래스에도 꾸준히 참가하여 깊이있는 음악적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피아니스트 김영선은 국내에서는 이성원 교수를, 국외에서는 Peter Lang, Gereon Kleiner, Imre Rohmann를 사사하였으며 이번 수성아트피아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문 연주자로서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 Piano 이종은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재학 중 도오
-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부속 영재학교 졸업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음악춘추 콩쿠르, 틴에이저 콩쿠르 등 다수 입상
- 쾨트 나가노 지휘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 2 협연
  - 함부르크 국립음대 실기강사 역임
- 현: 연세대학교 출강, 어뮤즈 트리오 멤버



SPECIAL GUEST

# PROGRAM

W.A.Mozart (1756-1791)

**12 variations “Ah! vous dirai-je, maman” KV.265**

L.v.Beethoven (1770-1827)

**Piano sonata No.8 op.13**

*I. Grave – Allegro di molto e con brio*

*II. Adagio cantabile*

*III. Rondo: Allegro*

- intermission -

F.Schubert (1797-1828)

**“Fantasy” for 4 hands in f minor D.940**

*I. Allegro molto moderato*

*II. Largo*

*III. Scherzo – Allegro vivace*

*IV. Finale: Allegro molto moderato*

J.Brahms (1833-1897)

**“Hungarian Dances” for 4 hands No.1& No.5**

*No.1 – Allegro molto*

*No.5 – Allegro Vivace*

A.Piazzolla (1921-1992)

**“Adios Nonino” for 4 hands (arr.Khoko Yamamoto)**